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68/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1학년도 수능특강 실전 2회

[01~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상품의 가격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율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라고 한다. 물물 교환을 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n개의 상품이 있으면, n개에서 2개를 뽑는 조합만큼의 상대 가격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상품의 수가 많아지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인간은 화폐를 모든 상품과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고정시킴으로써 가격의 척도나 저장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화폐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고대부터 화폐로 사용된 금의 경우 희소성이 커지자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기도 하였으며,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정복으로 페르시아의 금이 유입되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겪기도 했다. 이는 상품들의 가격이 변한 것인 동시에 화폐의 가치가 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6세기의 ㉠ 보딘은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화폐용 금의 양이 물가와 비례적 관계에 있다는 화폐 수량설을 주장했다. 이후 18세기에 고전학파라고 불리는 초기의 경제학자들은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당시 주류를 이루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했다. 중상주의자들은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용 귀금속을 부의 기본으로 보고 이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폈다. 특히 국가의 부는 무역 흑자에서 ㉡ 오는 것이라 생각하여 무역 흑자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펼쳤다. 이에 대해 고전학파는 무역 흑자로 인해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영국과 중국 등에서 무역 흑자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고전학파의 주장은 힘을 얻었다.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 거시 경제의 관점에서 지지하는 것이 ㉢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다. 교환방정식은 경제 체제 내에 어느 정도의 통화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통화는 여러 번 사용될 수 있으므로 명목 GDP\*는 통화량(M)과 일정 기간 통화가 평균적으로 사용된 횟수를 나타내는 값인 통화 유통 속도(V)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명목 GDP는 물가 수준(P)과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거래량(T)의 곱이기 때문에  $MV=PT$ 로 표현된다. 보통 T는 실질 국민 소득(Y)과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도 한다. 피셔는 V가 구조적, 제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체로 안정적이며, T는 기술력이나 고용과 같은 생산 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통화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화량은 물가 수준과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방정식은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 통화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였다면 ㉣ 마셜은 통화의 수요를 중심으로 현금잔고 방정식을 고안했다. 경제 주체들이 필요로 하는 통화량(M)은

명목 국민 소득, 즉 물가 수준(P)과 실질 국민 소득(Y)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마셜은 여기에 경제 주체들이 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장래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 보유 비율(k)이 높을수록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M=kPY$ 로 나타내었다. 이를 피셔의 방정식  $MV=PY$ 에 대입해 보면 k는 통화 유통 속도(V)의 역수가 된다. 그러므로 k 값이 크다는 것은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 잔고 방정식은 교환 방정식과 달리 화폐 보유 동기도 주목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된다고 본 점은 같다.

피셔와 마셜의 방정식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물가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이 고안되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기준 금리\*이다. 정부에서 기준 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은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채권 보유가 늘고 그에 따라 통화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기준 금리를 낮추면 채권을 현금화하는 양이 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준 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과 그를 통한 물가와 경기의 조절은 실제 경제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금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다.

마셜의 영향을 받은 ㉤ 케인스는 경제 주체들의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하며, 통화 유통 속도와 금리 정책에 대한 고전학파의 견해를 비판했다. 그는 화폐 보유 동기에는 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장래의 일에 대비하기 위한 동기 외에도 투기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통화 유통 속도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투기는 불로 소득을 얻으려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고 가치의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기준 금리를 낮춰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상승하지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케인스는 기준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머지않아 기준 금리가 상승하고 통화량은 줄어들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면 통화량을 늘려도 물가와 경기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경기의 부양을 위해 기준 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보다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목 GDP: 당해 연도 최종 생산물의 수량에 당해 연도 시장 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는 GDP.

\*기준 금리: 매달 중앙은행의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 금리로, 한 나라의 금리 체계의 중심이 되는 금리.

[A]

01.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금의 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 ② 화폐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은 절대 가격으로 고정되었다.
- ③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측하고 집을 팔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도 투기이다.
- ④ 정부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쓰는 이유는 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다.
- ⑤ 국내 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는 무역 적자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 ㉢과 달리 무역 흑자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 ② ㉠, ㉡, ㉢은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한다고 보았다.
- ③ ㉡과 ㉢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과 ㉣은 ㉡과 달리 사람들이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에도 주목했다.
- ⑤ ㉣은 ㉡과 달리 통화 유통 속도가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03.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2019년 A국의 명목 GDP는 80조 달러였고, 2019년 12월 31일의 통화량은 20조 달러였다. 같은 기간 B국의 명목 GDP는 40조 달러였고, 같은 시점의 통화량은 20조 달러였다. 단, A국과 B국의 환율과 물가 수준은 같다.

- ① A국의 통화는 2019년 평균 4회 사용되었다.
- ② 2019년의 A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B국의 2배이다.
- ③ 2019년의 B국 경제 주체들의 통화 보유 비율은 A국보다 크다.
- ④ 2019년의 A국의 명목 GDP는 B국의 2배이지만 실질 국민 소득은 4배이다.
- ⑤ 2020년에 A국과 B국 모두 통화량을 늘릴 경우 양국 모두 물가 수준이 올라갈 것이다.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갑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는 0%대까지 내려갔다. 계속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며 기업들은 현금의 부족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신 사람들이 현금을 아무 데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현상과 부동산 시장에 현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①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갑국의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려해야 하겠군.
- ② 중앙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한 것은 통화량을 늘려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③ 사람들이 현금을 아무 데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금에 대한 투기적 수요 때문이겠군.
- ④ 계속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현금 부족 현상을 겪는 이유는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기 때문이겠군.
- 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에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니겠군.

0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선이 우리 쪽으로 더 온 것 같다.
- ② 사고는 부주의에서 오게 마련이다.
- ③ 감기가 오는지 몸이 으슬으슬 춥다.
- ④ 노력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 ⑤ 봄이 남쪽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